

# 위세 떨치던 코로나 호황 업종들 ‘아 옛날이여’

### 골프장·안과·숙박업소 등 거리두기 해제에 매출 줄자 어려움 호소 “그린피 인상 등 배짱 운영하더니 이제와 엄살 부리나” 쓴소리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호황을 누리던 일부 업종들이 거리두기 해제되자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팬데믹 특수를 누리며 어려운 시기 반사이익을 누리더니 매출이 원상복귀되자 ‘엄살’을 부린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심야시간에 영업이 제한되는 등 규제가 생기자 골프장과 같은 실외체육시설을 비롯해 성형외과, 안과, 숙박업소 등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올해 4월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코로나 시기 호황을 누리던 이들 업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비대면 일상화시기 해외여행까지 어려워지자 외국으로 나가던 골프 수요가 국내로 몰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운동으로 알려졌던 골프에 대한 인기가 줄고 매출 또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화순의 한 골프장은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확연히 감소했다”면서 “지난해에는 예약이 짝차서 예약을 해도 한달 이상 기다려야 했지만, 지금은 당장 다음주만 해도 비어있는 시간대가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예약이 줄자 골프장 업종들은 그린피(이용료)까지 낮추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대중골프장 그린피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8% 하락했다. 호남지역 골프장은 평균 그린피가 2.2%로 소폭 하락했다.

상황이 이렇게 비대면시기 골프에 몰렸던 젊은 층들이 골프에 관심을 가지면서 구입했던 골프용품들을 대거 중고거래로 내놓고 있다.

9월 한 온라인 중고 플랫폼에는 광주지역에서만 골프용품 판매 글 수 백개가 올라왔다. 지난해 골프용품이 없어서 못 팔던 때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시력교정술을 전문으로 하는 광주지역 안과들도 최근 들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가 한창일때 남치던 환자들이 코로나가 끝나자 발길을 뚝 끊었다는 것이다.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윤모(47) 씨는 “매출이 절반으로 줄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윤씨는 “올해 초 서울 강남에서 인기가 좋다는 새로운 시력교정술 기계를 10억원을 주고 설치했는데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손님이 줄어 쓰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방학에 시력교정술 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아 거기에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심야시간 영업제한)로 밤 9시 이후 호황기를 누리던 숙박업소에도 흑한기가 찾아왔다.

심야시간 영업제한으로 모든 음식점이 일찍 닫거나 포장만 허용되자 갈 곳 없는 시민들은 숙박업소에서 식사를 먹곤 했다.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밤 늦게까지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 주말인 4일 밤 10시께 광주시 동구의 숙박업소들은 빈 방이 많았다. 지난해 밤 10시만 되면 웃돈을 주고서도 방을 구하기 어려웠던 모습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광주시 동구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이상태(54)씨는 “지난해 코로나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생각에 수천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했는데 올해 들어 평일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울상을 지었다.

지난해 2배까지 올렸던 방 값을 다시 낮춘 이씨는 “그때(코로나19가 심했던 지난해)를 그림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때만큼 황금이 또 있을까 싶다”고 안타까워 했다.

호황기에서 흑한기로 바뀐 상황 속에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쓴 소리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웠던 2년간 골프장 그린피를 29%가량 올리는 등의 운영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오주섭 광주경찰서 수사처장은 “코로나가 끝나 일상이 회복되면서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은 사회와 경제가 정상화로 돌아가는 과정이다”면서 “코로나 호황업종은 최근 2~3년의 수입을 원래의 매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행기 기자 hyunki@kwangju.co.kr



“등급 잘 나와야 할텐데...” 쌀 가격 폭락과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쌀 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9일 광주 대촌농협의 ‘2022년산 공공비축미 수매’ 현장에서 농민들이 등급 판정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선거법 위반 혐의’ 전남 단체장 잇따라 송치

6·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한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전남도 지자체장들이 잇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목포경찰은 지난달 31일 박홍률 목포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TV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배우자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A씨 등 5명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 혐의로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법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박 시장의 배우자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고발인 측은 박 시장 배우자 무혐의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상철 곡성군수도 지방선거 당선 보답으로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일 검찰에 넘겨졌다. 이 군수는 지난 6월 7일부터 이틀에 걸쳐 전남의 한우 전문 식당에서 열린 이 군수 당선 축하 모임에서 총 55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식사비용을 신용카드로 일괄 결제한 이 군수의 지인과 모임에 참석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총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군수는 “자리에 늦게 참석했고 어떤 자리인지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피의자들도 경찰에 “결제해 신용카드로 했으나 참석자들이 따로 밥값을 모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은 6·1 지방선거 당선인 가운데 목포·영광·장흥·강진·곡성 등 5개 지역의 기초단체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강진군수는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4명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자전거 훔쳐 해임 경찰관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퇴근길에 40여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쳐 해임된 경찰관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절도 혐의를 받는 광주서부경찰 소속 A(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새벽 광주 서부경찰 화정지구대 경위로 근무하면서 화정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진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자전거에서 야간 근무를 한후 귀가하는 길에 잠겨있지 않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갔다.

광주 서부경찰은 A씨의 절도 행위가 심각한 품위 손상이라고 보고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 도심 집단 난투극 외국인 일부 입건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심야 집단 난투극을 벌인 <광주일보 2022년 11월 9일자 6면> 외국인 중 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9일 난투극에 가담한 외국인 중 일부의 신원을 확보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을 위반(집단폭행·집단상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새벽 4시께 광주시 동구 광산동 구시청사거리에 있는 한 주점 앞에서 집단으

로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난투극에 가담한 외국인은 10여명이 넘으며, 러시아인과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령인 3~4세 등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구시청사거리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난투극까지 번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난투극에 가담했으나 아직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성형수술 받던 50대 여성 심정지로 중태

광주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50대 여성이 심정지로 중태에 빠졌다.

광주서부소방서는 8일 오후 6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A씨(여·54)씨가 성형수술을 받던 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9일 밝혔다.

수술을 하던 의료진은 곧장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뒤이어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응급조치로 A씨

는 호흡과 맥박을 되찾아 광주시 동구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만 병원에 이송될 때까지 A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부터 7시간여동안 3가지 이상의 성형수술을 잇따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   |
|---|---|
| <h2>상가 매매(상무지구) (유형적합)</h2>   | <h2>경매교육 [ 특수 전문반 ]</h2> <p>기초반, 중급반</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심 상업지구</li> <li>▶ 유흥가능 (전용 100평)</li> <li>▶ 시세 - 10억</li> <li>▶ 급매 - 6억 8천</li> </ul> <p>(보 3천, 월수익 380만, 용 4억)</p> | <p><b>*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li> <li>2) 중급반 (실전부터 ~)</li> <li>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li> <li>4) 투자반 (투자가능한 분)</li> </ol> |
| <p><b>010-6670-9800</b></p>   | <p><b>010-2614-9801</b></p>   |

|                     |                                      |
|---------------------|--------------------------------------|
| <b>▶ 경매 물건 추천 ◀</b> |                                      |
| 서구중앙동 (상가주택)        | ▶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4억6천                |
| 광산구 수완동(운솔의아침)      |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3억5천             |
| 북구 삼각동 (어린이집)       |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2천             |
| 북구 신안동 (공장)         | ▶ 감정가 13억 → 최저가9억2천                  |
| 광주                  |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16억 |
|                     | 광산구 우산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 → 최저가 2억8천   |
|                     | 영암군 심호읍 (숙박시설) ▶ 감정가 20억 → 최저가 7억    |
|                     | 장성읍 안평리 (농지) ▶ 감정가 17억 → 최저가 12억     |